

Industry Brief

2018-11-05

[증권] 10월 지표 점검

우려보다는 양호한 10월 지표

Overweight (Maintain)

Brokerage 지표 점검: 거래대금 및 신용잔고 감소

- 10월 일평균거래대금은 9.6조원으로 9월대비 11.3% 감소하였지만 3분기대비로는 1.8% 증가한 수준임. 10월 주식시장 급락에도 3분기 수준을 유지하였음
- 개인들의 매매비중은 57.3%로 3분기대비 5.6%p 하락하였지만 기관 및 외국인의 회전율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판단됨. 10월 회전율은 139.2%로 3분기 회전율 127.4%대비 상승하였음
- 신용거래용자는 9월말대비 20.6%(KOSPI -18.3%, KOSDAQ-22.9%) 감소한 9.4조원을 시현하였음. 예탁증권담보대출 또한 4.0%감소하였음. 10월말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2017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시장 급락에 따라 위험선호도가 하락하였기 때문에 판단됨
- 회사별 약정 점유율은 삼성 5.6%, 미래대우 12.0%, NH 7.3%, 한국 5.4%, 키움 15.9%로 3분기대비 각각 -0.4%p, -0.3%p, +0.6%p, -0.1%p -1.3%p 증감하였음. 개인매매비중 하락에 따라 미래대우와 키움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였고 NH 투자증권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

Trading 및 상품 손익 지표 점검: ELS 조기상환 및 발행이 3분기대비 회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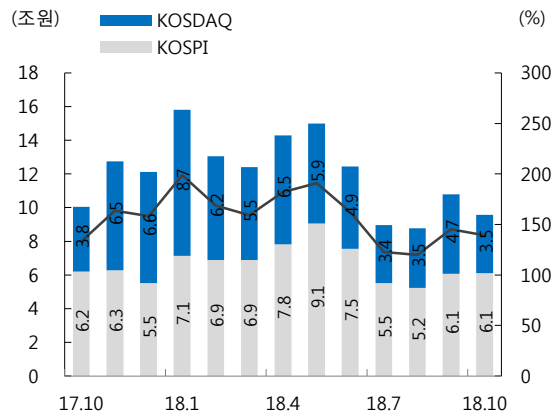
- 10월말 국고 1년물, 3년물 금리는 전월말 4.2bp, 6.0bp 하락하였음.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었고 소수의견으로 2명이 금리 인상을 언급하였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시중금리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됨
- 10월 업계 전체 ELS 조기상환은 4.1조원으로 3분기 월평균 2.7조원 대비로 회복되었음. ELS 발행 또한 5.8조원으로 3분기 월평균 4.8조원대비 높은 수준임. 다만 지난 3분기까 매우 부진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10월 글로벌 주식시장의 큰 폭 하락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호한 수준이며 지수 하락을 투자의 기회로 삼는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판단됨

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된 상황으로 판단

- 10월 주식시장 급락으로 인하여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심리는 극도로 악화되었음. Brokerage 수수료의 이익 기여도가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증권사의 이익에서 시장환경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수익원은 없기 때문임.
-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의 증권업 지표는 3분기 대비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됨. 3분기대비로는 거래대금과 ELS 조기상환이 증가하였으며 금리도 하락하였기 때문임.
- 변동성이 확대된 시장속에서 2019년 경기에 대한 우려까지 존재하며 미중 무역분쟁 역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업종에 대한 낙관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.
- 하지만 정부의 증권업종에 우호적인 정책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기적으로는 증권업의 자금 공급 기능 확대를 통해 주력 사업영역이 확장될 수 있다는 기회 요인을 감안할 때 지금의 Valuation은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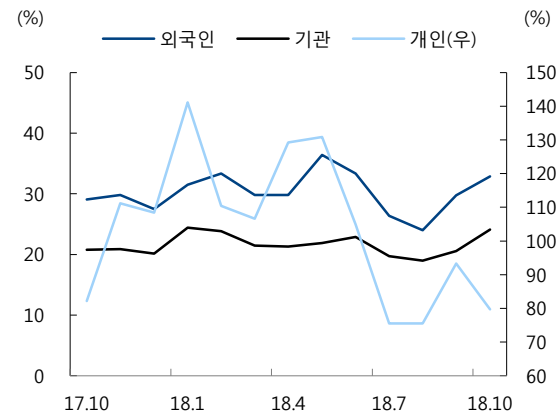
Brokerage 관련지표

일평균거래대금 9.6조원 3분기 평균대비 1.8%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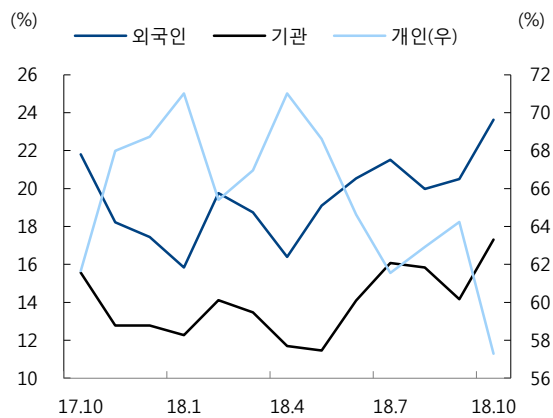
자료: KRX, 하이투자증권

회전율 추이: 외국인과 기관의 회전율 상승/ 개인은 부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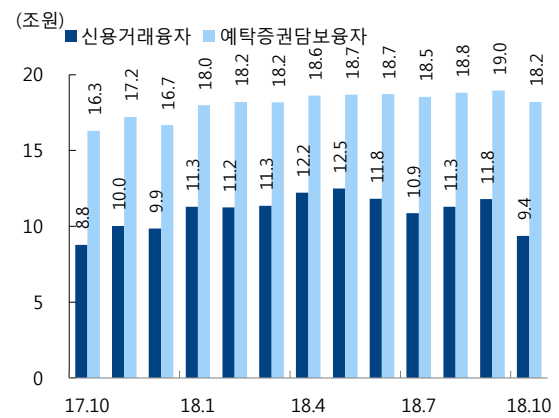
자료: KRX, 하이투자증권

주체별 매매비중 추이: 외국인/기관의 매매비중 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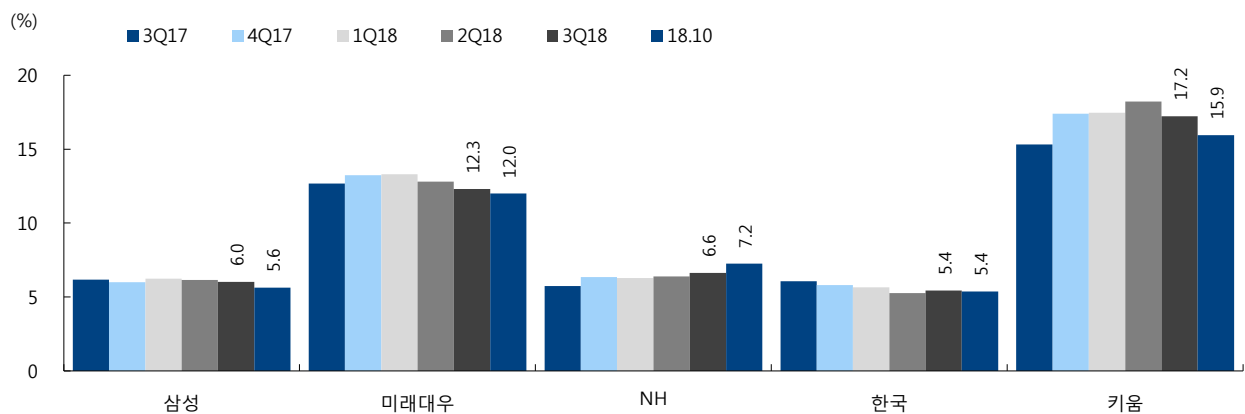
자료: KRX, 하이투자증권

신용잔고 및 예탁담보대출: 2017년 10월 수준으로 하락



자료: 금투협, 하이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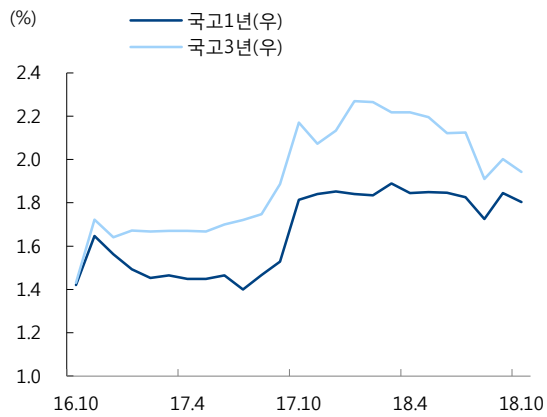
회사별 Brokerage 약정 점유율 추이: NH는 지속적으로 증가, 반면 키움과 미래대우는 개인매매비중 하락의 영향 받음



자료: Check, 하이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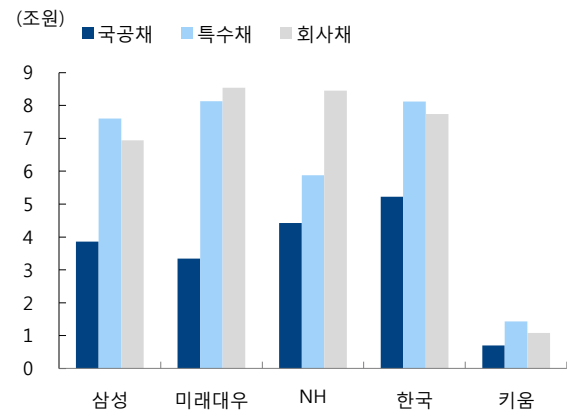
Trading 관련지표

채권금리: 9월말 대비 하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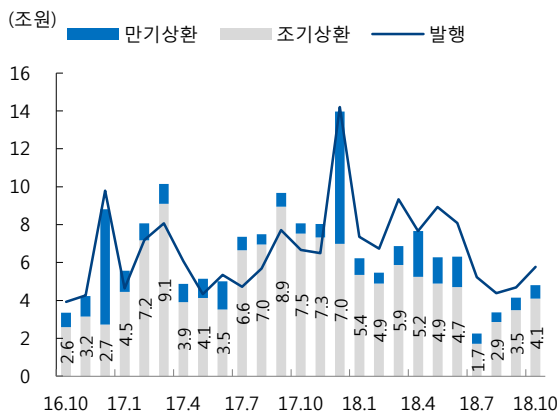
자료: BOK, 하이투자증권

증권사별 채권보유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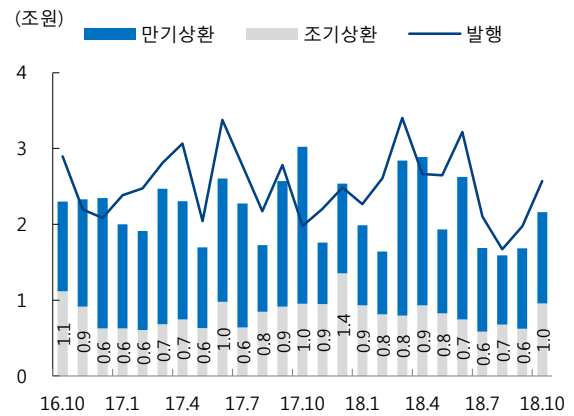
자료: 각 사, 하이투자증권

ELS 조기상환: 3분기대비 회복, 여전이 낮은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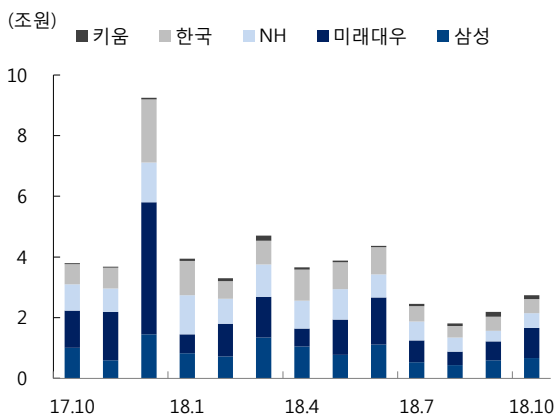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각 사, 하이투자증권

DLS 조기상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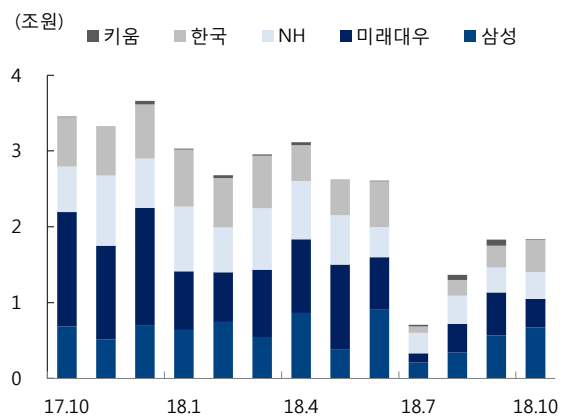


회사별 ELS 발행추이: 3분기대비 회복



자료: 각 사, 하이투자증권

회사별 ELS 조기상환 물량: 9월 수준 유지



Compliance notice

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,

- ▶ 회사는 해당 종목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▶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▶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-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▶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
- ▶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(작성자 : 강승건)

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

1. 종목추천 투자등급 (추천일 기준 종가대비 3등급)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.

- Buy(매 수): 추천일 종가대비 +15%이상

- Hold(보유): 추천일 종가대비 -15% ~ 15% 내외 등락

- Sell(매도): 추천일 종가대비 -15%이상

2. 산업추천 투자등급 (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)

- Overweight(비중확대), - Neutral (중립), - Underweight (비중축소)

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8-09-30 기준

구분	매수	중립(보유)	매도
투자의견 비율(%)	90.1%	9.9%	-